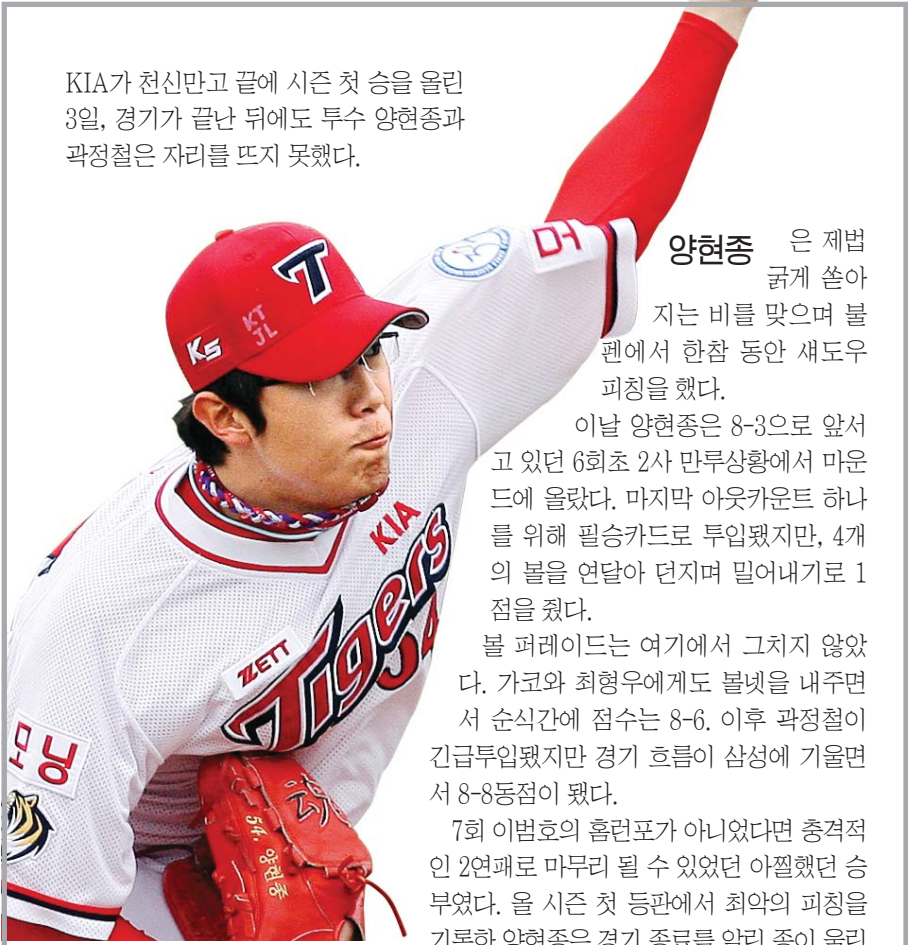


KIA 양현종-곽정철 늦은 시간 방황(?) 왜

KIA가 천신만고 끝에 시즌 첫 승을 올린 3일, 경기가 끝난 뒤에도 투수 양현종과 곽정철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양현종은 제법 쿼크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볼펜에서 한참 동안 새도우 피칭을 했다. 이날 양현종은 8-3으로 앞서고 있던 6회초 2사 만루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다.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를 위해 필승카드로 투입됐지만, 4개의 볼을 연달아 던지며 밀어내기로 1점을 줬다. 볼 퍼레이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가코와 최형우에게도 볼넷을 내주면서 순식간에 점수는 8-6. 이후 곽정철이 긴급투입됐지만 경기 흐름이 삼성에 기울면서 8-8동점이 됐다.

7회 이범호의 홈런포가 아니었다면 충격적인 2연패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아찔했던 승부였다. 올 시즌 첫 등판에서 최악의 피칭을 기록한 양현종은 경기 종료를 알린 종이 울린 뒤 짐을 싸는 대신 수건을 들고 볼넷으로 향했다. 밸런스를 잡기 위한 새도우 피칭을 하기 위해서였다. 경기장 불이 꺼진 뒤에도 양현종의 나홀로 훈련은 계속됐다.

볼 퍼레이드·만루포 허용 “두 번 실수는 없다” ‘V11’ 개척 희망투 다짐

곽정철은 팀의 시즌 첫 승리투수가 된 뒤 한참동안 덕아웃을 서성였다. 결승 홈런의 주인공 이범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게 곽정철의 설명이었다.

곽정철은 2일 개막전에서 윤석민이 이어 마운드에 올라 채 태인에게 역전 만루홈런을 허용했다. 이 만루홈런으로 걸친한 친구 윤석민은 눈부신 호투에도 불구하고 패전투수가 됐고, 팀은 개막전 7연패라는 치욕을 당했다.

곽정철은 “두 경기를 하면서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개막전 결과는 모두 내 책임이다. 긴장한 나머지 내 공을 던지지 못했다. 두 번째 마운드에 오르면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공을 던졌다”고 고백한 이범호를 예기했다.

곽정철은 3일 전날과는 다른 자신있는 피칭을 했다. 박석민의 동점 안타가 나오기는 했지만 채태인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충격의 6회를 마무리 한 곽정철은 7회도 실점없이 막으며 역전의 발판을 닦았다.

위기에 몰렸던 팀에 승리를 안겨준 이범호에게 곽정철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주말 KIA 팬들의 애간장을 녹여버린 두 투수는 명예회복을 노리며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다. 양현종은 원래 자리인 선발로 돌아와 두산과의 주말 3연전에 등판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파도는 내친구 호주의 제임스 우즈가 4일 폴리네시아의 랑기로아에서 열린 프로 서핑대회에서 멋진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 원정 6연전 승수쌓기

불안한 마운드 가다듬고 한화·두산 맞대결 ‘LCK’ 포 위력 다시 한번... 초반 레이스 주도

KIA 타이거즈 마운드가 대반전을 통한 명예회복을 예고하고 있다.

안방에서 열린 삼성과의 개막 2연전에서 1승1패를 기록한 KIA가 6일간의 원정에 나선다. KIA는 주중 대전에서 한화를 상대하고 주말 잠실에서 두산과 맞대결을 벌인다.

원정 길에 오르는 KIA에게 마운드는 최대 무기이자 또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KIA는 올 시즌 막장 선발진과 한층 보강된 볼펜진을 더한 탄탄한 마운드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막상 투망이 열리자, 팬들은 혼란에 빠졌다.

KIA가 2·3일 두 경기에서 기록한 팀 방어율은 7.00으로 꼴찌. SK가 1.50으로 가장 잔물 투구를 했고, 7위인 넥센은 3.94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윤석민의 아트 피칭과 트레비스의 무난했던 신고식에도 불구하고 볼펜이 흔들리면서 ‘마운드 대란’이 벌어졌다.

반면 시범경기 당시 격정을 샀던 타선은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이범호-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지는 ‘LCK포’가 무서운 집중력과 파괴력을 선보였고, 이현근, 김선빈 등의 타격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원정길 첫 단추는 용병 로페즈가 꿰었다. 지난해 잇단 돌출행동과 부진한 피칭으로 ‘마운드의 악동’이 됐던 로페즈는 ‘Again 2009’

를 외치며 올 시즌을 준비해왔다. 순한 양이 된 로페즈는 시범경기에서도 예전의 위력을 보여주며 기대를 높였다.

지난 주말 사직에서 롯데를 상대하고 돌아온 한화는 데폴라를 선발로 내세워 용병 맞대결을 예고했다.

주말 난투 두산과의 경기를 앞둔 KIA는 약체로 꼽히는 한화와의 3연전을 통해 전력을 정비할 계획이다. 불안한 출발을 했던 마운드를 가다듬고 타선의 기본적인 틀도 완성해야 한다.

지난 시즌 6승13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던 두산전에 투수진을 총동원할 예정이

라. 앞선 한화와의 경기에서 얼마나 마운드를 비축해두느냐가 승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초반부터 타선의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클린업 트리오가 일찍 위력을 발휘했고, 치열한 주전 경쟁에 힘입어 타선의 움직임도 상승세다. 유격수 경쟁자인 이현근·김선빈이 매서운 스윙으로 클린업 트리오의 뒤를 받쳐주고 있고, 또 다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우타 거포 김주형과 나지 안도 페이스가 좋다. 여기에 안치홍까지 제 컨디션을 찾게 될 경우 타선은 더욱 총출해질 전망이다.

친정팀을 상대하게 된 이범호의 방망이가 어떤 승부를 연출할지는 이번 주 팬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KIA의 새로운 해결사가 된 이범호는 5일 한화 마운드와 첫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우리도 있다”... 2군 퓨처스리그 오늘 개막

‘내일의 스타’를 꿈꾸는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의 2011시즌이 5일 시작된다.

프로야구 2군 리그인 퓨처스리그가 5일 KIA-한화, 상무-경찰청, LG-두산, SK-넥센, 롯데-삼성 개막전을 갖고 2011시즌을 연다. KIA는 무등야구장에서 오후 1시 한화와 첫 경기를 갖는다. 퓨처스리그는 남부리그 5개 팀(KIA, 삼성, 한화, 롯데, 넥센)과 북부리그 5개 팀으로 나뉘 8월14일까지 같은 리

그에 속한 팀과 18차례(홈9, 원정9), 다른 리그 팀과 6차례(홈3, 원정3) 경기를 한다.

팀당 총 102경기를 치르게 되며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팬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특정 구단의 연고지가 아닌 군산(15경기)과 춘천(6경기)에서도 중립경기가 열린다.

올스타전은 7월16일 군산에서 열리고, 올스타 휴식기간은 7월 15~18일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피겨여왕’ 김연아 이번엔 섹시하게

내달 6~8일 서울서 갈라쇼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내달 국내 아이스쇼에서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김연아가 5월 6~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KCC스위첸 올댓스케이팅 스프링 2011’ 아이스쇼에서 갈라쇼 ‘피버(Fever)’를 처음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피버는 세계적인 여성 팝가수 비욘세가 부른 곡으로, 김연아는 이를 특유의 여성미 넘치는 안무로 재해석해 국내 팬들 앞에 설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새 시즌을 준비해 온 김연아는 안무가인 데이비드 윌슨이 2월 프로그램을 점검하며 방문했을 때 함께 작업해 새 갈라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윌슨은 “피버는 매우 관능적이면서 세련된 음악으로, 이를 열을 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스케이터는 김연아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피터 오피가드 코치도 “세련되고 고혹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김연아의 연기는 우아하면서도 보는 이들을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다. 김연아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이번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유명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